소통과 공감을 통한
"일상이 이상이 되는" 교육행정 프로젝트

2024. 10.

북소리(북부소통동아리)

목 차

Ⅰ. 학습동아리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
1. 학습동아리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 ····· 3

Ⅱ. 북소리 1년 활동 – 역량강화(발제문)
1. 발제주제 목록 ····· 7
2. “도서-작별인사” ····· 8
3.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14
4. “영화-한 남자” ····· 25
5. “도서-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 32

Ⅰ "일상이 이상이 되는" 교육행정 프로젝트

2024년도 학습동아리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



북소리(북부소통동아리)

학습동아리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

학습동아리명 : 북소리(북부 소통 동아리)

□ 학습주제 :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일상이 이상이 되는” 교육행정 프로젝트

○ 토론과 나눔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교육현장에 활용하여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 회원 수(활동 종료일 기준) : 15명

□ 운영 결과(모임횟수, 평균 참석률) : 총 6회, 85.2%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정	2024. 4. 24.	2024. 5. 22.	2024. 6. 19.	2024. 9. 11.	2024. 8. 27.	2024. 9. 25.
참석률	92.9%	92.9%	78.6%	66.6%	93.3%	86.6%

□ 추진배경

○ 행정 고유의 영역에 다양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 및 사회적 배경, 흐름을 정확히 인식

○ 매월 도서, 영화 등을 선정하여 그 내용에 대한 주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소통 능력 향상

○ 연찬과 집단지성을 발휘한 역량 강화로 교육현장 발전 방안 모색

□ 추진내용

○ 미래와 AI시대, 해학이 숨쉬는 현대문학,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한계, 사회차별 등 많은 주제와 관련된 도서나 영화를 정하여 각자 학습 후 발제문을 작성해 발표

○ 회원들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경기교육 현장에 적용

□ 주요 활동 내용

차수	일정	주 요 활 동	비고
1	2024. 4. 24.(수)	○ 향후 동아리 계획을 논의하고 회원 간 놀이를 통한 알아가기 시간 만약에 질문 카드를 이용해 회원 간 소통 및 가치 공유하고 자유도서 발제를 통해 회원 간 책 소개 나눔	
2	2024. 5. 22.(수)	○ 김유정 소설 선집을 읽고 문학과 문화의 만남에 대해 토의 나눔 김유정 문학촌 탐방 및 전문해설사를 통한 김유정 이야기 공유, 제한적 공간에서 벗어나 문학 전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보고 느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소통 능력을 향상	
3	2024. 6. 19.(수)	○ 도서『작별인사』독서 발제문 발표 주인공 휴머노이드 철이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사회의 모습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생각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나눔	
4	2024. 9. 11.(수)	○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독서 발제문 발표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해 공동체적 가치 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 의견 나눔	
5	2024. 8. 27.(화)	○ 영화『한남자』발제문 발표 죠하츠라고 하는 일본의 신분세탁 사회현상과 차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나를 규정하는 것과 진짜 나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눔	
6	2024. 9. 25.(수)	○ 도서『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독서 발제문 발표 저자와 유사한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극복했던 경험, 슬픔을 치유하는 각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양주 안상철미술관『마음정원』전시관람, 한옥을 담담한 먹빛으로 그려낸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담대한 선들과 여백이 만들어 내는 집들 사이에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마음 정원을 찾는 기회가 됨	

□ 추진성과(실적)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공유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소통능력, 협업능력 향상 및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과 집단 역량 강화

○ 미래교육,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기 위한 회원들의 자율적인 소통과 학습을 통해 업무와 학습을 연계한 학습문화 조성.

□ 기대효과

○ 교육행정 및 사회적 흐름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역량 발휘

○ 자율·균형·미래를 경기교육 정책 공유로 학교 행정력 향상 및 경기교육의 주체로 성장

○ 배움·나눔과 관계 형성을 통하여 소통과 협력의 상생 문화 조성

Ⅱ "일상이 이상이 되는" 교육행정 프로젝트

북소리 1년 활동 역량강화(발제문)

북소리(북부소통동아리)

북소리 1년 활동 - 역량강화(발제문)

Ⅰ 발제 주제 목록

연 번	제 목	주제
1	“작별인사” (도서)	○ 도서『작별인사』독서 발제문 발표 주인공 휴머노이드 철이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사회의 모습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생각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나눔
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도서)	○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독서 발제문 발표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해 공동체적 가치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 의견 나눔
3	“한 남자” (영화)	○ 영화『한남자』발제문 발표 죠하츠라고 하는 일본의 신분세탁 사회현상과 차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나를 규정하는 것과 진짜 나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눔
4	“나는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도서)	○ 도서『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독서 발제문 발표 저자와 유사한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극복했던 경험, 슬픔을 치유하는 각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양주 안상철미술관『마음정원』전시관람, 한옥을 담담한 먹빛으로 그려낸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담대한 선들과 여백이 만들어 내는 집들 사이에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마음 정원을 찾는 기회가 됨

Ⅱ-1 “도서-작별인사”

책 제 목	작별인사		
저 자	김영하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소설은 연구소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철이’가 수용소에 잡혀가면서 자신이 ‘휴머노이드’임을 깨닫고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책의 제목이 ‘작별인사‘인 것과 왠지 외로워보이는 책표지의 그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초반부의 책 내용은 공상과학처럼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알쏭달쏭한 책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다. 점점 소설은 미래 사회의 모습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2. 인상적인 문구와 나의 느낌

150페이지

살면서 기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괴로움에 시달리거나 혹시 찾아올지도 모를 잠깐의 기쁜 순간을 한없이 갈망하며 보냅니다. .. 그리고 삶의 후반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보내게 되고, 죽음은 잊지 않고 생명체를 찾아옵니다. ..더는 겪지 않아도 될 이모든 고통을 다시 겪게 할 것인가요?

→ 고통(두려움,불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아이를 낳는 고통, 키우는 고통.살아가면서 아픈 고통 등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고통, 불안함,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고통과 인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원인이 필연적이던 우연하던,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통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사람은 성장하기도하겠고, 반대로 이해한다면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관계, 친구관계를 고통 속에서도 (항상 고민과 불안함이 있는 속에서도)잘 유지해온 것을 보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어쩌면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260페이지

“이성을 찾으세요. 이런 분 아니였잖아요” ~ 한때 최첨단 인공지능 전문가로 일

했던 그가 카메라와 스피커를 부수면 내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그런 광란을 했다는 게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이란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인가.

→ 똑똑한 철이의 아버지도 이성을 놓는 장면에서 ' 감정의 조절 '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직장에서 후배들도 생기고 결혼하고 시동생도 생기면서 상급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란 생각이 많이 든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팀장님의 모습 중 하나는 직장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상사였다. 나도 자기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

268페이지

~ 인간의 존엄성은 죽음을 직시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했다.

→ 죽음이란 두렵고 멀리해야하만 하는걸까?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다고하고, 불교사람들은 윤회사상을 믿는다. 그리고 과거 이즈텍문명의 사람들도 죽음을 긴여행이라고하고 두려워 하지 않았다. 죽음은 꼭 슬프고 영생이 좋은것만은 아닌 듯하다.

276페이지

생의 유한성이라는 배음이 깔려 있지 않다면 감동도 감흥도 없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이 한번뿐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수백배, 수천배로 증폭시켜주는 놀라운 장치로 '살수도 있었던 삶'을 상상속에서 살아보게 해주었다. 그러니 필멸하지 않을 나로서는 점점 흥미가 떨어졌던 것이다.

→ 10대, 20대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왜이렇게 나는 기를 쓰고 안간힘을 쓰며 여유없게 살까?란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지금 이대목을 읽고 생각이 스쳤다. 나는 그저 후회하기 싫었던 것이다. 20대 때 다시오지 않을 시절을 알차게 쓰고 싶었다, 20대를 노력하지 않고 놀기만하며 보내서 다가오는 30대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현재 지금은 무엇을 위해 절실하게 살고 있나?

283페이지

나는 선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유롭고, 남에 대해서도 여유로워지자

295페이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삶. 자아라는 것이 사라진 삶. 그것이 지금 맞이하려는 죽음과 무엇이 다를까?

→ 주인공 철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우주정신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생각들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흘러가는대로 살고, 흘러가는대로 살면 생각하지 않게 된다 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나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는걸까? 나이듦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나이를 들어가야할까..

작별인사를 보내며 " "화자정리 거자필반"

→ 마지막 작별인사를 보내며를 읽고.. 나도 김영하 작가의 아내처럼 글의 끝부분에서는 눈물이 났다. 주인공에게 너무 몰입해서 인지몰라도 선이가 헤어짐을 고할때 눈물이 났다. 아니 고작 소설 속에 사람이 죽었는데왜 나는 또 주책스럽게 눈물이날까?라는 창피함도 들었다.

나는 유독 헤어짐을 힘들어한다. 정이많은 내성격이 때로는 너무 성가시다고 느껴질대도 많은데 석가모니의 제자조차 헤어짐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을 읽고나서는 내 성격이 유별나다는 죄책감을 덜 수 있었다. 글을 읽는 초반에는 인간과 기계의 다른점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던 내가 책 제목의 ' 작별인사 '가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 생각했는데 글을 다 읽고 작별인사라는 제목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임을 깨달았다.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작별인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었다.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인간과 기계를 다르게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남을 돕고, 조율하는데에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았던 ' 선이처럼 ' 나는 나의 존재의의/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

글 속의 휴머노이드는 감정이 차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글 후반부에는 오히려 선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차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인간답지 않아서 기계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감정을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화가날 때, 두렵거나 걱정이 될 때 어떻게 그런 감정을 다루시나요 ?

이 책을 통해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되었는데요, ' 지금 ' 당신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지? 어떻게 나이들어가고 있는지 ?

제목	도서『 작별인사 』		
저자 및 감독	김 영 하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때는 근미래 주인공 철이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휴먼매터스' 연구원인 아버지와 함께 온실속 화초 처럼 자란다. 철학을 공부하고 소설과 문학을 좋아하던 소년은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나가지 못하게 하 는 바깥세상이 궁금하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간 날, 나라는 내전중으로 평양과 서 울에선 테러가 발생하고,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해 응징의 경고를 보냈으며 등록되지 않은 휴머노이드를 단속하겠다는 법을 개정하였다. 이때 휴머노이드들이 '무등록 휴머노이드'라고 하며 철이 를 수용소로 데려간다. 수용소에는 다양한 이유로 감금된 휴머노이드(로봇)들과 인간여자 아이 선이가 있다

철이는 애완용이었다가 버려진 휴머노이드 민이, 복제 인간인 선이와 친해지며 나름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곧 반란군(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출신의 사람들과 전투용 휴머노이드)들이 쳐들어와 그 곳을 탈출하고 그 과정에서 민이의 죽음, 새로운 기계의 세상을 꿈꾸는 달마와의 만남, 선 이와의 이별, 아빠와의 재회와 나의 육신의 마감의 상황들이 생긴다.

나는 몸이 없이 네트워크 속에서 아빠랑 살게 되었고 내 데이터는 키우던 인공지능 고양이 데카르트 에게 백업되었다. 아빠도 예전의 나를 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아빠는 기계에 지배당하는 인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를 더욱 제한하려 했고 이성이 망가져 가다가 결국 정신 병원 에 수용되어 그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네트워크 속의 나는 선이를 찾아냈고 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네트워크 속의 달마의 도움으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 그녀를 만나러 갔다.

인간 선이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녀의 마을에서 불곰의 피습으로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네트워 크에 접속해 달마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영생이 아닌 죽음을 택한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 철이 관점 변화 :

- 수용소에서 : '잠이며, 꿈이며 온갖 번거로운 인간다움에 대하여 나는 화가 났다'
- 클라우드에 업로드 : (P241) '일종의 순수한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짐작하지 못했다. 몸만 없을 뿐, 별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 없이 정신만 있다는것은 너무나 이 상한 경험이었다. 마치 잠깐동안 하겠다고 시작한 명상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명상을 끝내고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나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즐기던 것들에 흥미를 잃어갔다

- 몸을 되찾고 : (P279) 시베리아의 매서운 바람을 맞아 얼어붙은 몸의 일부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따 뜻한 차가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 잠시 정신이 혼미해 질 지경이었다. 의식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몸으로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 선이의 죽음 : (P291) 선이를 묻던 날, 공동체의 모든 클론과 휴머노이드, 개들이 한테 모여 선이의 무덤을 돌며 춤을 추었다. 개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울링을 하자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와 원을 그리며 아직 흙이 마르지 않은 무덤 주위를 날던 것은 지금도 믿기지 않은 신비로운 일이다.

○ 철이를 대하는 아빠의 태도 변화 : 아빠 → 소유물, 발명품

인류의 가치를 인공지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장 인간다운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으나 인류의 가치 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작 그 자신은 인간다움을 상실해 가며 죽었다

- 철이가 스스로 인간이라 생각할 때 : (P20) 앞으로 많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다보면~ 너무 거정 하지 않아도 돼
- 철이가 휴머노이드를 알게 되었을 때: (P216) 나는 원격으로 너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 선 : 우주의 모든 물질은 대부분의 시간을 절대적인 무와 진공의 시간에서 보내지만 아주 잠시 의 식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이므로, 지금, 각성하여 살아야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선이에게는 인간이든 휴머노이드든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선 이에게는 의식을 가진 인간과 의식을 가진 휴머노이드는 같은 존재였다.

- (P151) 우주에 의식을 가진 존재는 정말 드물어요. 비록 기계지만 민이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태어 나 감각과 지각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고통과 희망도 느꼈죠. 이 우주 어딘가에서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에 의식이 있는 동안 존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P152) 그 해야 할 일이란 존재의 고통을 공감하고 고통을 준 존재를 용서하고 고

통의 의미를 되 새긴 다음 그 고통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들은 이 세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의 무가 있어요.

○ 달마 : 개별의식은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집단지성을 만들어야 한다.

- (P148) : 저는 의식을 가진 존재. 특히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아예 태어나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고통도 없었을테니까요.

○ 책에서 느낀 인간다움 :

- (P148) : 나는 선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선이가 충분히 인간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충분히 인간이란 말이가

- (P276) : 생의 유한성이라는 배움이 깔려있지 않다면 감동도 감흥도 없었다. 생이 한번뿐이기 때문 에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했던 것이다.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스스로 인간답다고 느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Ⅱ-2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목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저자 및 감독	마이클 샌델 / 김선욱 감수, 안기순 옮김	발 제 자	

1. 이 책을 읽게 된 힘(느낀점 및 추천이유)

○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간 가치에 대한 태너 강의'에서 논의한 '시장과 도덕'에서 출발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역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정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불만』,『왜 도덕인가』등이 있다. 그의 자국 등에서는 거의 읽히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 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몇 년 전에 저자의『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던 기억이 있다. 나를 포함한 지인 여럿도 책을 읽고도 이해가 안 가고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곤 했다(서울대 공대출신도 있어서 속으론 그럼 그렇지 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는 내가 책을 소개하면 '알았어 읽어볼게 혹은 참고할게' 하던 첫째 아이가 이제는 나에게 책을 권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내가 추천한 책 3권 중에 하나가 바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 이와 같이하여 소분임원 3명이서 3권씩 추천한 책, 총9권 중에서 이 책을 읽고 싶다는 회원이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책 제목부터 많이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는가? 시장주의 체제에서의 경제논리, 도덕성, 공정성과 부패, 삶과 죽음 영역에 시장의 침범 등 우리 사회 현실에서 등장한 의문부호 일부분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2. 간략 줄거리(내용)

○ p35~ (새치기) 우선탑승권, 렉서스 차로, 대리 줄서기 사업, 진료예약권 암거래, 전담의사 제도, 새치기의 시장논리, 시장과 부패, 암표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 줄서기의 도덕 등

(대리 줄서기 사업) 새치기 권리를 살 수 없는 곳이라도 때로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줄을 서게 할 수 있다. 공항과 놀이공원, 의회 복도와 병원 대기실에서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돈을 낸 만큼 획득한다'는 시장 윤리로 대체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유 존중에 대한 존중이고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

대화에 대한 주장
⇒ 대전 성심당 '40분 3만원' 줄서기 알바 관심 폭발, 개인적으로 줄서기에 찬성!
○ p69~ (인센티브)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 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건강유지를 위한 뇌물, 왜곡된 인센티브, 벌금 대 요금, 검은코뿔소 사냥권 구매, 바다코끼리 사냥권리, 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학생들에게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성적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AP과정, 해당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학업 성취를 이루도록 돈으로 학생들을 매수해서가 아니라 학업 성취와 학교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
- (건강유지를 위한 뇌물) 뇌물이라는 혐의가 적절하다고 생각. 건강증진을 위한 뇌물은 우리를 속여서 어쨌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담배를 끊거나 체중을 감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결국 뇌물에 조종당하는 상황은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을 받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질지도 모른다.
⇒ 연구결과 금연을 시작한 흡연자 가운데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90퍼센트 이상
⇒ 교육학에서 토큰강화와 유사하지 않은가?
○ p13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 선물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 선물의 현금화, 돈으로 구입한 명예, 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반박, 비시장 규범 밀어내기, 핵 폐기장, 기부의 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 상품화 효과, 혈액판매, 시장에 대한 신념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사랑의 경제화 등
(선물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 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 하지 않는다. 시장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선물보다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그러나 선물 대신 돈을 주면 선물의 의미가 퇴색된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우정을 유지하는 사회적 관행을 상품화하면 공감・관용・배려 같은 규범의 자리에 시장가치가 들어선다.
(핵 폐기장) 스위스의 방사능 핵 폐기물 저장 장소⇒재정적 유인책, 보상금 인상 제안 등은 별 효과가 없었음.⇒ 거주민들의 시민적 의무감이 핵 폐기장 유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누른 것임. 지역사회 훼손을 묵인하는 데 대한 뇌물로 비칠 수 있음.⇒보상금 보다 도서관, 놀이터, 학교 등의 인프라는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공정신을 존중함으로써 시민의 희생을 동일한 가치로 보상.
(혈액판매) 영국 사회학자 리처드 티트무스가 수행한 헌혈에 관한 고전적 연구

・(영국) 영국은 보상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기증으로 확보
・(미국) 미국은 일부 혈액은 기증,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혈액을 구입하는 혈액은행을 통해 충당⇒ 혈액을 일상적으로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핼액을 기증하겠다는 도덕적 책임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 혈액의 양과 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도덕적・사회적 삶을 저하시킴
⇒ 혈액과 혈액 기증의 상품화는 이타주의 표현을 억누르고 공동체 감각을 잠식한다.
⇒우리나라에도 완전한 혈액 기증은 없다고 본다.
○ p181~ (삶과 죽음의 시장) 청소부 보험,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 데스폴, 도덕적 측면에서 본 생명보험의 간략한 역사, 테러리즘 선물시장, 타인의 생명, 사망채권
(말기환금) 말기환금이란 증권소유자가 자신의 생명보험증권을 할인 매각하여 대금을 받는 생명보험 전매형태. 말기환금은 대부분의 투자에는 없는 도덕적 문제를 낳는다. 투자가는 보험계약자가 빨리 죽기를 기대한다. 보험계약자가 오래 살수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데스폴, Death pools) 사이버 공간에서 올해 어떤 유명인사가 사망할지를 예측하는 게임
(생명보험 전매사업) p213 버거는 65세 이상 논인들에게 생명보험증권을 사서 투자가들에게 매각⇒투자가들은 보험증권을 사서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고, 최초 보험계약자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을 탄다.⇒과거에는 보험증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해서 자동적 실현 또는 소액의 해약환급금을 받고 해지⇒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협상?⇒그러나 생명보험 유통시장은 수많은 논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있음. 경제학 논리와 생명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도덕적 거북함과 관계가 있음.
⇒ 보험금 납입과정에서 건강이나 재정악화로 납입 중단사례 등으로 개인적으로 찬성함.
○ p223~ (명명권) 사인(sign)의 거래, 경기 이름, 스카이박스, 머니볼, 광고의 자리, 상업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 시정 마케팅, 스카이박스화
(광고의 자리) 화장실, 소설 등 서적, 영화 및 드라마에서의 광고
(시정 마케팅) 해안 구조와 음료공급권, 지하철역과 자연 관찰로, 순찰차와 소화전, 감옥과 학교
・(감옥과 학교) 채널 원(Channel One), 아이보리 비누, 아동서적 출판사 스콜라 스틱, 고등학교 미식축구장 명명권 10만~100만 달러, 공연예술 강당(100만 달러), 체육관(75만 달러), 과학실험실(5만 달러), 학교이름(5백만달러), 교장실(1만 달러), 교육청의 성

적표 공간 매매, 학교통학버스 양쪽 측면 광고, 학교 벽과 바닥, 의자, 식당 테이블 등
⇒ 학교에 범람하는 상업화는 두 가지 면에서 부패. 첫째, 기업의 후원으로 제작된 교육자료는 편견과 왜곡, 피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둘째, 기업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상업적 광고는 학교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전히 유해하다.
⇒ 하지만 교육은 자신의 욕구를 비판적으로 돌아본 후에 욕구를 자제하거나 향상시키라고 가르친다. 광고의 목적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인 반면, 공립학교의 목적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 학교에서의 광고자체에 반대, 서적(소설가 윤대녕은 상품명 등이 보통명사화된지 오래됨, 영화, 드라마는 직간접으로 모근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스카이박스화)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공동체적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려면 배경・사회적 위치・태도・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며 서로 마주하고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견뎌내고 이를 놓고 협상하고 공공선에 관심을 쏟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따라서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 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 살수 없는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 우리나라도 연극, 공연, 각종 스포츠게임 등에서 이미 일반화되었기에 크게 거부감이 없음. 코로나시대에는 특권층의 공간이 더 많이 생겼음.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소규모 학교(학생수 60명 미만), 홈스쿨 및 검정고시 등 독학으로 학업성취를 이룬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당신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사업에도 실패하여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학력, 외모, 성격 등에서도 일반인과는 그리 크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신체는 존재합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 일부를 팔수 있나요?
○ 이 책을 읽고 이런 분야는 공공선 및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추후 사업적으로 추진하거나 권장할 만한 분야가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 살수 없는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p276
○ 중국작가 라오서의『초승달』은 모녀가 매춘으로 삶을 연명하는 줄거리의 책입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모녀의 행동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제목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저자 및 감독	마이클 샌델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 마이클 샌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시장경제와 도덕적 가치를 다룬 책이다. 시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에 어떤 것들이 돈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내용으론,

- 시장의 영역 확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 불평등과 부패: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
- 도덕적 경계 설정의 필요성: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며, 사회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도적적 경계를 설정해야한다.
-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재화의 도덕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지, 어떤 것은 절대 사고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부터도 돈으로 안되는 게 어딨어라는 말과 생각을 종종 하곤 했는데, 내 삶에서 돈이란 무엇이고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와 그럴 수 없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인센티브가 오히려 중요한 가치(자발적 동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과 고유가치(사랑 등)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읽고 잘못된 가치평가로 인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었다. 돈으로 표현되는 시장경제가 가져오는 효율성에 익숙해져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겼던 거 같다. 하지만 그 효율성에 진정한 도적적 가치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인상적인 문구와 나의 느낌

○ 현대 정치는 도덕적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문제다. P.32
-> 생각해보면, 현재 정작 중요한 일들은 관심에서 밀려나고, 정치권에서 부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더욱 심한 경우에는 뇌물이 아이들의 도덕 교육을 변질시켜 감사의 미덕을 배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감사 카드를 쓰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방법은 단기간의 감사 카드의 수를 증가시킬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해당 재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다. P.93

->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달성한다면 모든 행동에 '하고 싶어서', '해내고 싶어서'가 아닌 그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라는 왜곡된 사고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다.

○ 시장논리가 물질 재화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 사람들의 선호에 담긴 도덕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효용을 맹목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P.129

->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변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화를 상품화하면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또한, 토론을 통해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느꼈다.

○ 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처럼 선물 교환을 합리적인 사회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시장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예외없이 선물보다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고, 선물 교환의 핵심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안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물을 현금으로 주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P.142

-> 나 또한 효율성과 편리함만을 고려하여 별생각 없이 주었던 상품권들이 선물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켰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 모든 것을 사고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P.276

->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 같다.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 사회에 대해 돌아보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 내 삶에서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었는지?

○ 가치가 시장논리로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제목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저자 및 감독	마이클 샌델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지상주의가 만연하면서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정과 사랑, 명예처럼 인간이 지켜야 할 고유의 덕목조차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심각한 윤리적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ex) 미국 일부 도시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82달러/1박),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6,250달러), 미국 자녀의 명문대 기부 입학허가(case by case), 남아프리카의 멸종위기 코뿔소 사냥권(15만달러)

이 책은 시장지상주의가 불러온 윤리적 혼란에 "시장은 과연 옳은가?"라는 논쟁적 물음을 제시합니다. 마이클샌델은 이 책에서 시장의 논리가 사회와 일상을 침투해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시장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 거래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 가치의 차원에서 시장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숙고할 공적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 조정래 소설 『허수아비춤』에서 봤던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라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이 돈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과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아니 "돈으로 팔고, 사고 해서는 안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방, 치안, 선거권 등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돈으로 팔고, 사고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예전에는 줄서기와 같이 선착순으로 어쩌면 평등하게 인식되던 (돈으로 거래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치기권(놀이공원의 패스

권, 공항의 패스트트랙)과 같이 매매대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돈과 시장 논리 속에서 시장이 지니는 도덕적 한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빈부격차의 최소화와 우리가 불공평,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그 시장의 도덕적 한계의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클수록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기존에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사려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팔면 안되는 것들을 돈을 받고 팔려할 것입니다.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보편성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이 한끼에 돈을 10,000원 낸 학생에겐 더 맛있는 반찬을, 돈을 5,000원 낸 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반찬을 준다면 이는 불공정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실과 일반식당과 차이가 아닐까싶습니다.
○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가치의 차원에서 시장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 숙고할 토론을 깨인 의식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이 책의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 최근 만족스러웠던 소비 경험은?

제목	도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저자 및 감독	마이클 샌델 / 안기순 옮김	발 제 자	

1. 핵심 내용

○ 서론: 시장과 도덕

■ 시장지상주의 시대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열쇠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쥐고 있다는 신념을 선언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신념은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의심의 화살을 맞고 있다. 우리는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의 본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 새치기

■ 줄서서 기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따금 돈을 지불하고 새치기를 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던 이 일은 최근 들어 새치기 권리를 파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낯설지 않은 관행이 되고 있다.

■ 공항과 차로, 놀이공원, 의회 복도, 병원 대기실, 무료 야외공원에서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돈을 낸만큼 획득한다'는 시장 윤리로 대체되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는 한때 비시장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에 돈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센티브

■ 인센티브가 좋지 않은 것은 금전상의 동기가 더욱 바람직한 다른 동기를 밀어낸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요점은 시장이 특정 규범, 즉 거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를 상품화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분배 정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명분이나 활동이나 사회적 관행은 적합한 수준보다 낮은 규범에 의해 다뤄질 때 부패된다. 부패한 판사나 공무원처럼, 돈을 받고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은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대상을 판다. 그 여성들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책임감과 보살핌의 규범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선물이나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다룬다.

○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정, 명예 등은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면 그 가치가 변질되어 버린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두 가지 반박 중

공정성에 관한 반박에서는 사람들이 불평등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가난한 농부의 각막 판매 등)을 지적한다. 부패에 관한 반박에서는 시장의 가치평가와 교환이 특정 재화와 관행을 변질시킨다고 주장한다.

○ 삶과 죽음의 시장

■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는 것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한다. 즉 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직원의 업무에서 찾지 않고, 직원을 상품선물로 다루게 된다.

■ 데스풀 게임의 도덕적 비열함은 주로 게임이 표현하고 조장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다.

○ 명명권

■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상품화하기 시작했다. 야구선수의 사인, 야구장의 이름, 스카이박스, 집, 심지어 자신의 몸과 자식의 이름까지도 상품화하고자 한다.

■ 물론 각자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상에 대한 가치는 변질된다. 어떤 대상이든 기업의 로고를 새기면 의미가 바뀐다. 시장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시장과 상업이 재화의 성질을 바꾸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시장에 속한 영역은 무엇이고 시장에 속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장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관행과 재화의 의미에 관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 우리가 어릴 적에는 세상에는 돈을 살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는 얘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우리가 공유해왔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어떤 가치로 생각되어질 지가 정말 궁금하며, 조금 더

지난 미래에는 오직 돈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 될까 두렵기도 하다.

○ 데스풀: 1990년대에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섬뜩한 도박 게임. 사이버 공간에서 올해 어떤 유명 인사가 사망할지를 예측하여 겨루는 게임.

→ 과연 타인의 죽음을 그 타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 하더라도 게임의 소재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인 가치는 무엇인가?

○ 내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Ⅱ-3 "영화-한 남자"

제목	한남자		
저자	이사카와 케이(감독)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문구점을 운영하는 리에. 그녀의 문구점에 그림 도구를 사러 종종 들르던 다이스케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게 된다. 둘 사이에 딸도 태어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던 중 벌목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떠난 후,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내던 남편의 형이 찾아와 영정을 보고는 다이스케가 아니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한 순간에 정체가 묘연해졌다.
리에는 예전에 이혼할 때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 키도에게 남편의 진짜 이름과 왜 지금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한다
키도는 리에의 남편을 X라고 부르며, 진짜 다이스케의 행방과 X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남편이 사용했던 다이스케라는 이름의 실제 인물은 이카호 온천의 둘째 아들 이다
가업을 잇는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은 동생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변호사 키도는 오래전에 호적을 교환하는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고 구속된 사기꾼 오미우라노리오를 만나러 교도소를 찾아간다. 그는 다이스케를 알고 있었으며 단서가 될만한 이름 2개를 적은 카드를 키도의 사무실로 보낸다
키도는 점점 X가 왜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왔는지 몰입하게 된다

변호사 키도는 사형수 그림전에서 X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 얼굴은 있으나 눈 부분이 뭉그러져 있는 특이한 그림. 그 단서로 X의 아버지가 강도

살인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라는 것과 X의 이름이 하라마코토라는 것을 알게된다

하라마코토는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몸을 괴롭히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고 재능이 있었으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신인왕전에서 포기하게 된다
복싱을 하는것도 여자를 만나는 것도 그를 옭아매고 있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심리적 사회적 벽앞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결국 그는 호적을 교환하는 범죄를 통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벽을 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카호 온천의 둘째아들 다이스케에게는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여자는 다이스케를 찾는 방법으로 다이스케라는 이름의 SNS 활동을 한다. 그러면 진짜 다이스케가 보고 연락을 할지도 모르는다는 생각으로...
그녀의 예상대로 연락이 왔고 다이스케는 소네자키 요시히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된다. 그 또한 가업을 잇는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즉 X는 한번만 호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소네자키 요시히코로 호적을 바꾼 후 다시 다이스케와 호적을 교환 하였던 것이다. 오미우라노리오가 보냈던 카드에 적힌 이름 2개의 단서가 풀리는 순간 이었다

변호사 키도는 재일교포 3세다. 유능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한 일본 내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그 또한 재일교포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키도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X와 공감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아이덴더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X의 삶과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본다

영화의 마지막은 변호사 키도가 다이스케라는 이름으로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끝이 난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차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차별을 한다]

차별당한 사람은 그 차별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차별당하는 과정에서 차별의 방법을 배우고 또 다른 기준과 편견으로 또 누군가를 차별한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진상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

리에는 진상을 안 후에 알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좋은 아버지 였고 따뜻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남편이 누구의 아들이었건 내가 알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완전해 진다고 생각 할때가 있다. 하지만 알게 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한계 짓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를 규정하는 것과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정체성들로 인한 차별과 혐오. 내가 의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느껴야 하는 고통과 절망은 정체성의 무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불합리함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오는 한계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 불합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 모두일까...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1.차별 당하고 있다고 느낀적이 있나요? 그 차별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2.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게된다면 지금의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내가 알고 있던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배경)을 알게 된다면 내가 알던 그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화제목	**한남자**		
감 독	이시카와 케이	발 제 자	

1. 책의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선입견을 가지고 일본영화를 안 본 나에게 북소리를 통해 “카모메식당, 안경”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책과 영화를 조금씩 보게 되었고 나름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다른 느낌을 선사해 주었다. 일본인 작가가 귀화한 재일교포 일본인 입장을 보여준 것도 새로웠다.

뇌종양으로 아들을 잃고 이혼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절망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결혼해서 소중한 행복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런 사고로 잃은 리에는 남편 다이스케의 사망1주기때 묘소를 어디에 써야할지 하여 본가에 연락하고 형 교이치가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영정사진이 동생이 아니라는 것~ . 리에는 전에 이혼소송시 의뢰했던 키도에게 신원 확인을 의뢰하게 되고 호적을 바꾸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

신원확인 전 X라는 이름으로 호칭하며 사건전말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동료 변호사로부터 57세의 남성이 67세의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 사건을 얘기해주며 호적을 바꿔주어 사기죄로 복역중인 오미우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나중에 온 엽서에서 소네자키 요시히코라는 사람과 호적교환 함을 알게 된다.

동료 변호사가 주최한 사형수 그림전시회에서 X가 그렸던 그림중의 모습과 비슷한 여인의 눈의 모습이 흐릿한 스케치를 보며 그 그림을 그린 자가 고바야시 겐키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아들이 있었음을 알게된다. 너무나 닮은 X가 그의 아들 하라 마코토이고 두 번의 호적을 바꿔 다이스케로 살아간 것이다.

살인자의 아버지를 두고 특히 동네 이웃의 부부와 그 어린아들까지 살해한 아버지를~.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을 것 같다. 마코토는 예명을 사용하며 복싱선수로 두각을 나타내지만 신인왕 출전을 앞두고 사라지게 된다.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싶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것이 들어나게 될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있었던 일들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듯이 본인이 살인자가 아닌데도 모든 것이 관계와 관계가 이어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건을 풀어가는 키도 변호사 역시 본인이 귀화한 재일교포 일본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니며 마코토와 묘한 동질감(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을 느낀 것이 아닐까 싶고 삶의 고뇌

를 풀어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을꺼 같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신인왕을 포기하고자 관장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관장은 그것은 아버지가 한 일이지 마코토가 한 일이 아니라고 신인왕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을 얻기 위해 감래해야하는 것이 있고 감래해도 안되는 것이 있다. 마코토는 내안에 같이 있는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 자기를 때리며 복싱을 한다고 했다. 마코토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애처롭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삶의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덜어가며 비워가는 것이 인생인 거 같다.

영화 첫장면에 뒷모습을 보이는 두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는 키도가 있고 영화 끝장면에 같은 그림이 있는 바에서 키도가 본인이 다이스케인양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중에 본인 이름을 말하는 부분에서 망설이며 말하지 못하고 끝을 맺는다.

⇒ 뒷 모습은 어찌보면 앞모습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거 같다. 나는 못보는 뒷모습을 상대방이 봐주며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 주고 내가 만들지 않은 추억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내가 이루지 않은 이력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리에는 보고서를 직접 전해주러온 키도에게 지나고 나니 어쩌면 이 사실을 모르는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아들 유토 또한 아빠와 한 추억을 간직하며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준 이유를 죽은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바랬던 것을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준 것 같다고 한다. 이 말에 리에는 아버지가 유토를 사랑했기 때문에 잘해준 것이라고 말한다.

⇒ 이전에 갖고 있던 추억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도 지금부터 나와 같이 한 부분은 또 다른 나와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므로 더 중요한 것 같다. 과연 나라면 하라마코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었을까?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살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내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에서 살아간다면 한국과 일본의 대립된 의견시 순전히 일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제목	한남자		
저자	이사카와 케이(감독)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 영화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종'이라는 사회현상을 다루면서 과거를 지우고 새롭 게 태어나고 싶은 한남자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이다. 제70회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히라노 게이치로의 동명소설 '한남자'를 원작으로 한다.

○ 둘째아들을 뇌종양으로 잃고 첫째아들을 데리고 이혼한 리에 앞에 다이스케라는 한남자가 나타나고 그 둘은 사랑이 빠져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3년 9개월이 넘어서는 어느 날 다이스케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사망 1주기에 찾아온 남편의 형으로부터 리에는 남편 이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고자 변호사 키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키도는 리에의 남편인 X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X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괴로운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다른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키 도는 그 과정에서 X의 삶과 결정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재일교포 3세인 키도도 사회의 차별과 편견속에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키도도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된다. 한편 엄마 리에의 결혼상황에 따라 성이 바뀌는 아들 유 토도 아빠를 잃은 슬픔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괴로워한다.

키도는 조사결과를 리에에게 보고하고 리에는 남편 X의 이름을 찾고 무덤도 만들어 주게 된다. 아들 유토도 아빠의 과거와 결정을 이해하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끝내고 한층 성 숙한 모습이 된다. 위태롭던 키도의 가정도 키도가 X의 정체를 찾는 일과 함께 정체성 고 민을 끝내며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되며, 키도의 신 분 도용을 암시하는 스토리로 영화가 마무리 된다.

☞ X는 살인자 아버지의 행동으로 삶 내내 고통 받았고 그 고통의 선택으로 신분세탁을 결 정했다. 복싱으로 그 상처를 승화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일본 특유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X의 정서적 상처와 결정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로인해 복싱 관 관장님을 비롯한 친구들, 아내 리에, 아들 유토 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의 일탈로 나와 삶을 공유하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괴로운 기억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더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 일본에서는 '자발적실종'이라는 사회현상을 '죠하츠'라고 하며 '증발'이라는 뜻인데 이는 사 라지는 그 자체가 아닌, 신분세탁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일본 버블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죠하츠'를 도와주는 정식업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갑자기 사라진 뒤 새 삶을 산다는 것 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죠하츠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업실패, 빚 과 같은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불행한 가정생활, 취업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범죄 등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인 문제의 이유도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실 패에 관대하지 않고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하여 가족마저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족 중심적 문화가 강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이 강해 정서적으로 안정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정이 많고 관대하다. 또 자살예방, 심리상담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확대 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자발적 실종현상은 드물게 나타난다.

○ 하지만 오늘날 한국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이 만연하고 청년실 업, 주택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사회 범죄 는 점점 복잡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으며 SNS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비교와 비난, 가짜 뉴스 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 한국에서도 자발적 실종이 늘 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 한국 사회가 자발적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외에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조성 하고 가족, 친구, 동료,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편화 해야 한다. 또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아,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당신이 X 였다면 X 와 같은 선택을 하였을까요? X의 신분세탁이 이해 되나요?

○ X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진실을 숨기고 살 수 있었을까요?

○ 마지막 장면에서 변호사 키도의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화속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되지 않았던 인물은 누구 인가요?

○ 일본에서 자발적 실종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봅시다.

○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생각해봅시다.

Ⅱ-4 "도서-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제목	도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 All the Beauty in the World		
저자	패트릭 브링리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 줄거리: 저자는 대학 졸업 후 시사주간지 <뉴요커>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형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투병 끝에 결국 형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친형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우울함을 경험한 저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장 단순한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고,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작품들,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들,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의 죽음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은 저자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 나의 느낌: 미술작품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는데, 미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서 책을 완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경비원으로서의 직장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웠고.. 설명하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사진이 수록되지 않고 주석이 너무 길어서,, 쉽게 읽히지는 않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다 보니 저자와 함께 미술관에 와 있는 기분도 들었고..(초반에는 책을 읽으면서 사진을 찾아서 봤습니다.) 저자의 예술작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자가 가이드 해주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 [64페이지] 그날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이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형의 침대 옆에 앉아 있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바라봤다. 어머니는 잠이 든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새벽빛을 보고, 아픈 몸을 보고, 그 끔찍함을 보고, 그 우아함을 보았다. "우리 좀 봐" 어머니가 말했다. "봐, 지금 우리가 바로 옛 거장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잖아."

→ 품격 있는 가족 같았다, 이 상황에서도 예술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정말 남다르다..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옛 거장들의 그림 또한 순간순간의 우리의 일상들이다. 일상들이 예술작품이 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일상

의 모든 순간들이 예술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브링리 어머니의 말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 보니..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개인적인 고통들을 많이 겪겠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저자가 극복한 것처럼..

○ [114페이지] 어느 예술과의 만남에서든 첫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지켜봐야 한다. 자신의 눈에게 작품의 모든 것을 흡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또는 '이건 가, 나, 다를 의미하는 바로크 시대 그림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상적으로는 처음 1분 동안은 아무런 생각을 해선 안된다. 예술의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전시회를 찾을 때면 항상 작품 옆의 설명 또는 대여한 오디오에 집중해서 거의 공부하듯이 봤던 기억이 있다. 저자처럼 예술이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다. 우리가 예술이 어려웠던 건 우리 사이에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 [324페이지] 많은 경우 예술은 우리가 세상이 그대로 멈춰 섰으면 하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너무나 아름답거나, 진실되거나, 장엄하거나, 슬픈 나머지 삶을 계속하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이다. 예술가들은 그 덧없는 순간들을 기록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은 덧없이 흘러가버리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도록 계속 아름답고, 진실되고, 장엄하고, 슬프고, 기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믿게 해준다.

→ 예술작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어떻게 예술작품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도 보여 주는...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저자는 힘든 시기에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예술작품과 함께하면서 슬픔을 치유합니다.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를 주는 저자와 같은 공간, 음악, 예술작품이 있나요? 슬픔을 치유하는 각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 저자의 애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자의 애도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용기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 책에 수록된 예술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셨나요? 미술관에 가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제목	도서『 나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 원제 : All the Beauty in the World		
저자	패트릭 브링리(미국)	발 제 자	

1. 핵심내용과 나의 느낌

○ 친형의 갑작스런 죽음, 상실감, 깊은 슬픔후 잘 나가던 뉴요커(잡지사)를 떠나 메트미술관에서 10년간 경비원 근무 ☞비평범, 특이함

○ 가장 아름다운 것(예술품, 위대함), 가장 단순한 일(경비) 마주함 ☞대조적 상황

○ 완벽한 고요(온전히 집중, 반복)가 건네는 큰 위로(현실 직면)

○ 예술작품 감상법 추천- 첫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저 지켜본다. 자신의 눈에게 작품의 모든 것을 흡수할 기회를 준다, 아무런 판단 금지, 1분동안 아무런 생각 금지, 예술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미술에 대한 지식 부족해 흥미 낮아, but 용기가 생김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말하기

○ 매트, 세계박물관 중 3위, 최근 미국 야구 관중수보다 압도하는 미술관 방문객수 †

○ (작품1)브뤼헐 "곡물 수확" 농부들의 일상 희극적 묘사

- 눈부시고 놀라운 것은 위대한 그림인가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

○ (작품2)안젤리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 고통 외에 다양한 반응, 감정이 있는 리얼리즘 표현

- 침통해 하는, 옷을 잘 입은, 말을 타고 있는, 구경꾼, 호기심 있는, 지루해 하는, 다른곳에 신경이 팔린 사람들

○ (작가의 말)미술관에 들어설 때 인색하고 못난 생각은 두고 아름다움을 모아둔 저장고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작고 하찮은 먼지 조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즐기십시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눈을 크게 뜨고 끈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존재감과 완점함뿐 아니라 상세한 디테일을 발견할 만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침묵과 정적 속에서 범상치 않은 짓 혹은 예상치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제시하기

○ 저자와 유사한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극복했던 체험이 있었는지, 무엇으로 극복?

- 예)장기 도보여행(知人, 수년간, 인근-국내-국외 확장, 건강회복), 0000

○ 현대사회 분주함의 속에서 고요함, 침묵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 미술작품 등 예술(음악, 춤, 연극 등)과 친해지는 나만의 TiP?

○ 행복한 현재(지금)를 누리기 위한 첫단계, 작은실천 무엇이 있을지?

책 제 목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저 자	패트릭 브링리	발 제 자	

1. 책 소개

“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다니던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한동안은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패트릭 브링리의 독특하면서도 지적인 회고를 담은 에세이다.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미술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상실감을 극복하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선망 받는 직장에서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경력을 쌓아가던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죽음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슬픔에서 도피하듯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된 브링리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여덟 시간씩 조용히 서서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거장들의 혼이 담긴 경이로운 회화와 조각부터 고대 이집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과 오롯이 교감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는 동안 서서히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가며 멈췄던 인생의 걸음을 다시 내딛기 시작한다.(네이버에서 발췌)

2.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의견

○ 69페이지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구절에.. 먹먹했다. 올해 가족을 잃는 나는 저 문구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쓴 글귀 같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란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싶었다. 이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하기에 조금은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주인공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을 찾았다. 바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 주인공은 그렇게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었다.

나에게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은 어디일까 생각해 봤지만.. 아직은 찾지 못했다.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과연 현실에 있을 수 있는건가.. 란 생각도 들었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이 부럽기도 하였다. (가끔만 아름다운 세상이어도 그런 세상을 찾고 누려도 평타는 치는거 같다..;;)

○ 151페이지

사진에서 눈을 돌려 전시실을 둘러보니 문득 웃음이 터질 것 같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 명의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데 하나같이 벽에 걸린 무색의 움직임 없는 인물 사진들을 보느라 옆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현실의 사람들은 흔해 빠진 대상들로 간주 되는 듯하다. 정말이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대상 아닌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지나쳐 영원히 사라져버릴 낯선 이들에게 왜 구태여

관심을 쏟겠는가 …… 여기에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조지아 오프키는 우리에게 없는 미덕을 갖고 있는 듯하다 ……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지루하고 평범한 세속의 영역을 분리하는 액자가 둘러져 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멈춰 서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이 필요하다. 예술 작품은 바로 그것을 허락한다.

→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 예술 작품의 본질인가.. 연예인과 예술 작품은 같은 역할인가.. 인간은 무언가를 흠모하면서 힘들고 재미없는 현실을 잊고 즐거움과 쾌락을 향유하는 것인가..

→ 현실 세계의 흔해 빠진 대상들이 예술 작품인가.. 현실세계와 영역을 분리하는 액자가 둘러진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 예술 작품인가..

살아 숨쉬는 흔해 빠진 대상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연인, 친구로 명작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예술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로 보면 흔해 빠진 대상이지만 한명 한명 다가갈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대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내 인식은 슬프게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달라졌다. 그 전에는 대화에서 욕이 반이고 껄렁하게 몰려다니는 길거리에 중고딩을 보면 나중에 머가 되려나.. 저런 아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까.. 란 생각으로 바라봤는데 슬프게도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한명 한명이란 생각에 내 자식처럼 이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은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났다.. 전국민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은게 아닌가 싶다. 지금도 (가끔 무서운 학생도 있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학생이 다 귀하고 이쁘다. 우리 한명 한명이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고 흠모의 대상인 예술 작품이지 않나..^^

○ 319페이지

15세기 이탈리아 수사 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옛 거장들의 그림에서 자주 보이는 리얼리즘이다. 끔직한 순교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창문을 열고, 별생각 없이 그 옆을 지나간다. 디테일로 가득차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 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 언제인가 뉴스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슬픈 뉴스를 전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다음 뉴스를 전하는 걸 보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0대 초반쯤 같다.. 나는 슬픈 뉴스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머 그런 복잡한 감정이였는데 아나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일은 별거 아니란 듯이 다음 뉴스를 차분하고 건조한 톤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나는 슬퍼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구나.. 슬픈감정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거구나.. 라는 걸 희미하게나마 느꼈던거 같다.

끔찍한 순교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그림 속의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한다. 그게 [리얼리즘] 이라고 한다. 사실주의. 현실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재현하려고 하는 창작 태도. 한마디로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다. 세상은 각자 열심히..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다. 각자 살아가느라 바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속에서 가능하면 조금만 상처 받고 가능하면 많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삶은 자기 몫의 고통과 아주 가끔 즐거움이 있을 뿐이야 행복한 척도 불행한 척도 그만하자 그냥 살다 가는 거야]

○ 321페이지

[모나리자]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그림은 파리에 있어요.

3.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있나요? 어디..? 무엇인가요...?
- 좋아하는 화가가 있나요? 최애 그림을 꼽는다면요?